

기고



김종경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정치후원금, 우리 모두 함께해요

오랜만에 '삼진그룹 영여 토익반' 영화를 보았다. 이 영화는 1995년 을지로 대기업의 말단 고졸 출신 삼인방이 회사의 비리를 깨며 성장하는 이야기이다. 극 중 자영은 공장 외근에 나갔다가 내가 다니는 회사가 폐수를 유출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자영은 회사 동료 두 명과 함께 내부 고발자가 되어 진실을 파헤쳐 고자 한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삼인방은 의지를 갖고 끝까지 밀어붙이게 되고, 폐수 유출의 범인을 찾아 바로잡게 된다. 이들은 짧은 시간에 소수의 행동이 모여 그 의지가 전염되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티끌이 모이면 태산도 넘어트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듯 작은 시작이 모여 궁극적

으로 이 사회를,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는 바로 국민의 정치 참여 중 가장 보편적인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다. 투표 외에도 다양한 정치 참여 방법은 많겠지만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 또한 하나의 정치 참여 방법의 일환이다. 국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을 후원하여 지지하

고 제대로 정책을 펼치는지 지켜봄으로써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정치후원금이란 국민이 정당 또는 정치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정치후원금은 개인이 정당에 후원하고자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기탁금" 과 개인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고

자 정당·정치인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으로 나뉜다. 후원금은 인당 연간 2천만 원, 1회 500만 원 이하로 여러 후원회에 나눠 기부할 수 있고, 기탁금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참고로,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을 못하도록 규정된 공무원·사립학교 교원들 또한 기탁금 제도를 통하여 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를 통해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요금 등의 방법으로 쉽게 기부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3천만 원 초과금

액은 2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즉,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하고, 연말 세액공제도 받는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소액이지만 다수의 국민이 참여하고 기부하는 정치후원금 문화가 활성화 된다면 정치인은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영화 '삼진그룹 영여 토익반'의 삼인방처럼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는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정치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투명한 정치후원금을 바탕으로 정책과 공약이 진정으로 실현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위해 정치인과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겨울 캠핑시즌 낭만 앞서 안전부터 챙기자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활동이 잦아지면서 캠핑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자연과 낭만을 즐기기 위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캠핑장비를 챙기거나 야영용 트레일러 캠핑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캐러밴 캠핑장은 모든 시설이 갖추어진 캐러밴을 이용객들에게 대여해 주기 때문에 사용의 편리함으로 인기가 높다. 하지만 겨울 낭만에 앞서 겨울철 캠핑에는 각별한 주의해야할 점이 의외로 많다. 얼마전에도 캠핑장에서 잠들기 전 켜놓은 부탄가스를 이용한 휴대용 난로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일

이 발생한바 있고 일부 캠핑장의 경우 야간에는 숙직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전기 및 소방시설이 허술한 측면도 보이고 있다고 언론에서도 지적한바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캠핑 텐트에서의 숙박시 화기사용은 비가 내리거나 텐트 외부에 높이라도 쌓이게 된다면 공기순환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처럼 밀폐된 공간에서의 가스난로나 화로대와 같은 화기 사용은 가스 중독은 물론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텐트 안은 바람이 통하지 않는 밀폐된 공간이고 산소를 연소시키는 방식이다보니 일산화 탄소나 불완전 연소 가스가 텐트 내부에 축

적되면서 질식할 위험이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캠핑시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 가스를 연료로 한 랜턴 등 가스버너인데 휴대가 간편하고 부피가 적어 선호하는 추세이지만 가스연소 기구에 의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캠핑을 즐기기에 앞서 올바르게 가스버너를 사용법을 익혀야 한다. 캠핑장에서 이용객 상당수가 숯, 화로 등을 이용해 바비큐 등을 해먹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소화용 소화기 비치여부도 숙박전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야외로 캠핑을 떠나기 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가스 연소기구는 반드시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

인도 해볼 필요가 있다. 겨울철 야외에서는 질식과 화재 예방을 위해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의 지름길이었으나 부득이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텐트 환기를 열어놓는 등 환기를 철저히 하여 질식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즘 대부분의 야영장에는 전기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전기를 이용한 난방을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것이다. 캐러밴 시설주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별도로 숙직자를 배치하거나 곳곳에 소화기 비치 및 긴급방송시설 설치 등의 노력에도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겨울철 야영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캠핑 야영장과 캐러밴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것은 곤란하다. 김덕형/장성경찰서정보보안과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Lists various emergency and service numbers.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